



# 굴복하지 않는다

단편 소설 (작가: SEAN COPELAND)

작가  
SEAN COPELAND

작화  
SURFSIDE 3D

선임 디렉터, 스토리 및 프랜차이즈 개발  
VENECIA DURAN

선임 매니저, 집필 및 출간  
MATTHEW COHAN

편집 감독  
CHLOE FRABONI

선임 편집자  
MEGAN WALKER

선임 브랜드 아티스트  
SOPHIE ERB

선임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프로덕션  
CARLOS GARCIA RENTA, TAKAYUKI SHIMBO

게임 팀 자문  
RAPHAEL AHAD, JOSHUA GREENFIELD, PHILLIP  
HILLENBRAND, JR.,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번역  
BLIZZARD LOCALIZATION



Blizzard.com

© 2026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굴복하지 않는다

붉은십자군 성전사의 검이 빛을 번뜩이며 포세이큰 여성을 단칼에 머리부터 어깨까지 베었다. 근처에 있던 성기사 두 명은 처형이 아닌 다크문 축제의 곡예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환호했다.

«살인자!» 결박된 포세이큰이 거칠게 말했다.

«망할 시체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웃기는군.» 성전사가 쏘아붙였다.

코맥은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절대 잊지 못할 그 목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다. 먼 친척. 친구. 전우.

그리고 그를 살해한 자. 붉은십자군 성전사 아렉 미스트맨틀.

깜빡이지 않는 노란색 눈이 숨 쉬는 법을 잊은 존재다운 침착함으로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수풀을 가른 그의 두 손에 성스러운 빛이 희미하게 모여들기 시작했고, 빛은 서서히 그 아래의 죽은 피부를 치유했다. 코맥은 두 손에 불이 붙은 듯 갑작스러운 고통이 느껴져 손을 탈탈 털었다. 빛이 잦아들면서 고통도 사라졌다.

코맥의 부서진 기억 속 남자가 그의 눈앞 현실에 나타났다. 그의 갑





옷은 티끌 하나 없었고, 망토는 해진 곳도 하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장에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은 자에게서만 존재할 수 있는 깨끗함이었다. 코맥이 자기도 모르게 등에서 꺼낸 전쟁망치의 손잡이를 꼭 움켜쥐었다.

«성전사들이여! 화장터를 만들어 이번 사냥을 기념하자. 이 괴물들을 정화해서 귀한 분께 공물로 바치는 거다. 어디 보자, 진정한 빛의 용자께 바쳐야 하는데.»

그는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손가락을 튕겼고, 그 이름을 떠올리며 더욱더 가학적인 미소를 지었다.

«딱 맞는 분이 있지.» 그는 돌아서며 건틀릿의 보이지 않는 흠을 털어냈다. «잔혹한 가빈라드.»

그 이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코맥 안의 무언가를 부러뜨렸고, 그는 가슴 속에서 거친 외침을 토해냈다. «배신자!»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진 망치가 그가 숨어 있는 곳에서 날아가 아렉의 가슴을 때렸다. 엄청난 폭발음이 터져 나왔다. 망치가 어찌나 격렬하게 그를 때렸던지, 충격파에 판금 갑옷이 찌그러지고, 그가 쓰러진 곳에서 흠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코맥은 기습 공격에 놀란 다른 성전사들이 미처 정신을 차리기 전에 전쟁망치를 들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상대는 반사적으로 검을 들어 달려드는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코맥은 성스러운 빛의 속삭임이 흐르는 망치를 휘둘러 하찮은 듯 손쉽게 그를 때려눕혔다.

«가만히 묻혀 있을 것이지.» 아렉은 거칠게 말을 뱉으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이제 널 두 번 죽일 수...»

두 번째 빛의 망치가 성전사의 말을 끊었다. 뼈와 방어구가 만족스럽게 하나로 뒤엉키면서 투구는 망가졌고, 성전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벗어야 했다. 아렉의 반격은 놀랍도록 빠르게 시작되었다. 성스러운 빛이 그의 부상을 치유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아렉의 망치가 엄청난 무게로 코맥의 왼손을 때려, 하마터면 손이 팔에서 떨어질 뻔했다. 코맥은 비명을 지르고는 거리를 벌려 부상을 확인했다. 흥측한 각도로 꺾인 손에서 체액이 흘러나왔다.

아렉은 서서히 코맥에게 다가오며 전쟁망치로 치명적인 일격을 날

릴 준비를 했다.

«이제 죽어라, 이 괴물아.»

«그렇까.»

아렉은 온몸의 근육을 긴장하며 부서진 몸의 힘을 모두 끌어내 코맥의 허벅지근육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다. 하지만 그 공격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중에서 떨어진 빛의 망치가 그의 드러난 머리 위를 때렸다. 상처에서 쏟아져 나온 피가 그의 시야를 가리고, 발 아래 세계가 흔들렸다. 잠시 동안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오직 저항의 정신으로만 서서 버텼지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더 또렷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코맥이 그림자도 따라잡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코맥은 아렉에게 몸을 부딪쳤고, 한 가족으로서 이미 수없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를 꽉 끌어안았다.

코맥이 생전에는 불가능했던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고는 아렉의 드러난 목덜미의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살점을 깨물었다. 충격을 받은 아렉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코맥은 온몸의 힘을 실어 이를 깨문 후 야만적인 괴력으로 뜯어냈다. 아렉의 망가진 목덜미가 젖은 천처럼 찢겨 나갔다. 갑옷과 대지 위로 피가 흘뿌려졌다. 코맥의 이가 떨어진 후 망가진 아렉의 목덜미에서 액체가 부글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두 사람이 잠시 동안 죽음의 포옹으로 뒤엉켜 있는 사이, 아렉의 몸에서 마침내 힘이 빠져나갔다. 그의 몸이 무너져 내리고, 그걸 내려다보는 코맥의 턱을 지나 흘러내린 피가 희생자 위로 떨어졌다.

사방이 고요했다. 흙바닥 위에서 단말마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판금 갑옷이 덜그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침묵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아렉에게 어울리는 최후였다. 하지만 코맥은 가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코맥은 포세이돈 상단과 그 습격자들의 잔해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문득 생존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다들 달아난 게 분명했다. 당황한 사람들이 뛰고, 기고, 어떻게든 움직이면서 전투로부터 멀어지려 했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애써 무시하고 있던 고통이 갑자기 밀려와 코맥은 무릎을 꿇어





했다. 생전에는 익숙하고 편안한 온기로 알고 있던 것이 언데드가 된 지금은 고통을 주었다.

코맥이 성스러운 빛을 불러내 자신의 파괴된 육신 위로 흐르게 할 때마다 본질적으로 교정을 거부하는 육신이 억지로 들러붙고, 다시 깨어나지 않아야 할 죽은 신경들에서 불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부러진 손을 붙잡고 적당한 각도로 조정한 후, 마음을 다잡고 빛을 그곳에 집중했다.

망가진 손을 치유해 달라고 빛을 향해 나직한 목소리로 진심 어린 기도를 했다. 죽음 뒤에도 늘 그러했듯, 빛은 응답했다... 격렬하고 무자비하게.

치유가 시작되고, 시간의 의미가 사라졌다. 조각난 뼈들이 억지로 서로 이어졌다. 썩어가는 육신은 손에서 뼈가 드러났던 곳 위로 뻗어 나갔다. 치유의 모든 과정이 어찌나 지독한 고통으로 불타올랐는지, 코맥의 비정상적인 시야까지 하얗게 바래 버렸다.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코맥은 전쟁망치의 손잡이를 물고 비명을 질렀고, 그러다가 턱 어딘가가 부러졌다. 그 새로운 부상이 치유되는 아픔이 코맥의 온몸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의 교향곡에 더해졌다.

고맙게도 어느덧 빛이 흐려져 가는 동안에도 코맥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고, 가슴은 호흡을 모방하듯 오르내렸다. 다시 일어설 의지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그가 일어섰을 때, 어깨에 걸친 휘장으로 눈이 향했다. 한때는 깨끗한 백색에 사명감, 신념, 확신의 붉은색 징표가 찍혀 있던 휘장이 이제는 그의 육신과 마찬가지로 너털너털한 녀마가 되어 있었다.

그는 멍하니 휘장을 쓰다듬었다. 언뜻 처음 자신의 몸 위에 그 휘장이 드리우던 순간이 보였다. 직물 자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과 함께, 언데드의 삶이 아닌 사명감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며 붉은십자군 휘장을 착용하던 그때.

코맥은 언데드 생존자들이 달아난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었고, 오직 그들만이 대답할 수 있었다. 그들을 구해주었으니,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급히 달아난 그들의 흔적을 쫓아가는 사이, 숲이 조금씩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빛의 힘을 이용하느라 기진맥진해진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앞쪽 숲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지켜보는 느낌이 있었다.

그를 향한 시선의 느낌은 흔들리지 않았다. 생존자의 흔적을 쫓아가는 동안, 그 시선은 불편할 정도로 치밀하게 그를 따라왔다. 멀리서 코맥을 지켜보는 것은 동물도, 그가 쫓는 생존자도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이었다.

인내심이 훨씬 강한 무언가였다.

---

생존자의 흔적을 쫓는 건 어렵지 않았다. 당황한 자들의 뒤를 쫓는 건 늘 그랬다.

코맥은 나무가 뺨뺨한 숲에서 서두르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걸었다. 달아난 도망자들의 발이 파헤쳐 놓은 부드러운 흙을 그의 장화가 다시 밟았다. 부러진 나뭇가지, 고르지 않은 걸음에 끌려 파인 흔적들, 가끔씩 묻어 있는 체액까지. 흔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의 눈에는 모두 분명한 이정표로 보였고, 생존자들은 멀리 가지 못한 것 같았다.

나무가 가늘어지고 생존자들의 간이 야영지가 눈에 들어왔다. 너덜너덜해진 육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는 시늉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코맥이 다가가자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착용한 휘장을 한 순간에 알아보았다. 모두가 손을 들어올리고 덜덜 떨었지만, 한 사람은 달랐다. 언데드 여성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몸을 감싸고 길게 흘러내리는 로브는 여기저기 덧대고 찢겨 있었고, 두 눈은 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역한 노란색으로 형형이 빛났다.

코맥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드디어 찾았군.»

그 여자가 모두를 대표해 말했다. «일을 마무리하러 왔나?»

코맥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마. 그랬다면 내가 왜 도와줬겠어?»

그녀의 말투가 비꼬는 투에서 분노로 변했다.





«도와줬다고?! 그자들은 모든 걸 파괴했어!» 그녀는 잔뜩 짜증이 나서 웃었다. «우리 목숨도 포함해서! 애초에 우리가 죽은 건 너희 망할 십자군 때문이라고!»

코맥이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고개를 가웃거렸다. «글쎄.» 그는 말했다. «애초에 중요한 걸 지킬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지.»

의도치 않았지만, 그 말에 그녀는 따귀를 맞은 듯했다. 여자의 표정이 뜨거운 분노에서 차가운 살의로 변했다. 그녀의 손바닥에 화염 티끌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혼란스럽게 움직이며 안쪽으로 따리를 틀었다. 그녀의 손 주위로 불길이 피어오르고, 그 열기와 밤의 냉기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듯 충돌했다.

«다시 말해 보시지.»

코맥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살아 있는 얼굴에서 이미 수도 없이 보았던 표정이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다음에 닥쳐올 일을 피할 수 없었다.

화염의 창이 비명과 함께 그를 향해 날아왔다. 예전에 다른 마법사들이 시전한 것처럼 말끔하게 통제되지는 않고, 격렬하고 혼란스럽게 날아들었다. 불덩이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접촉한 방어구가 한 순간에 뜨거워졌다. 마법사의 불길이 남긴 열기는 그의 부름에 응답한 빛의 타오르는 고통에 비하면 따뜻한 산들바람 같았다.

코맥은 빠르게 기도문을 속삭이며 빛의 도움을 받아 전방으로 돌진했다.

마법사는 그 모습을 보며 욕설을 내뱉고는 주위에 비전 마법의 방벽을 세웠다. 룬이 섞인 말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날카롭고, 빠르고, 숙련된 주문이었다. 번쩍이며 나타난 비전 룬이 서로 겹치며 마법을 받아들일 현실이 뒤틀렸다.

코맥의 망치는 마법사가 아니라 그녀 바로 앞의 지면으로 향했다. 붉은십자군 수도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강한 충격파와 흠이 밖으로 퍼져 나가면서 마법사의 집중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전쟁망치가 내리쬐는 자리의 대지가 갈라졌지만, 적은 그 자리에 없었다.

열어붙은 바람의 포효가 그의 등을 때렸다. 스며드는 서리가 방어구의 움직이는 부분을 움켜쥐고, 틈새 사이로 흘러들어 그의 가슴에 달라붙은 휘장을 얼렸다.

위치를 옮긴 마법사는 다시 손을 움직이면서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비전 마법이 전방으로 폭발하고, 갑작스러운 냉기가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순간적으로 얼렸다. 추위가 어찌나 강렬한지 공기 그 자체가 결정화되는 것만 같았다. 코맥은 얼어붙은 구속에 맞서 싸웠다. 빛이 방어가 아니라 저항을 위해 그에게서 쏟아져 나왔다. 빛의 에너지가, 아니, 어찌면 코맥의 비명이 얼음을 찢고, 공기를 가르고, 돌을 삼켰다.

빛의 고통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다. 신성한 힘이 빠져나온 위치마다 그의 썩어가는 육신이 갈라졌다. 체액이 그의 팔을 따라 흘러내리고, 잔류하는 빛이 치유하는 곳에서 쉬잇 소리와 함께 증기가 되어 날아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법사가 다시 위치를 옮겼다. 그녀는 코맥의 저항에 눈에 띄게 불안해했고, 성기사는 주문이 미처 완성되기 전에 그녀 앞에 도달했다. 전쟁망치가 잔혹한 호를 그렸다. 마법사는 충격에 대비했다. 방벽의 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문을 완료하려 했다. 망치와 충돌하는 순간 방벽은 소멸했다.

망치 머리가 코맥이 노린 머리가 아니라 마법사의 상체를 때렸지만, 그 위력은 충분했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뼈와 피부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그녀의 손에 형성되고 있던 주문이 붕괴되며,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비전 역류가 일어나 두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

잠시 후, 마법사는 일어서려 했지만 코맥이 이미 전쟁망치를 높이 들고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몸을 굴러 피했고, 망치는 지면을 강하게 때려 그녀의 머리 옆에 작은 분화구를 만들었다.

그녀는 비전 마법의 작은 폭발을 일으켜 그를 공격했다. 패턴을 이루는 형태도 없고, 시간과 준비를 통해 계획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순수하게 지향된 힘이었다. 코맥은 충격을 견뎠다. 빛이 다시 번쩍이고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도 따라왔다. 건틀릿을 착용한 코맥의 손이 그녀의 목을 붙잡아 땅에서 들어올렸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녀의 썩어가는 육신을 지면에 내리쳤다.

«사라져라.»

나직한 목소리로 내뱉은 명령이었다. 빛이 그의 부름을 듣고 응답했다. 찬란한 섬광이 그의 손에서 쏟아져 나와 붙잡힌 자에게 흘러들었

다.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는 무자비한 퇴마였다. 신성 마력이 마법사에게 쏟아져 들어가 그녀의 얼굴과 가슴을 뒤덮고, 마치 가연성 기름처럼 언데드의 육신을 모두 불태웠다.

빛이 포로와 시전자들 모두 불태워 코맥은 비명을 질렀다. 빛은 뱀처럼 구불거리며 코맥의 팔을 타고 올라와 적뿐 아니라 그의 부서진 육신도 함께 불태웠다. 마법사의 목을 붙잡은 손에 반사적으로 힘이 들어가고, 턱은 앙다물어 치아가 갈라질 정도였다.

불잡힌 마법사는 성스러운 빛에 삼켜지는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코맥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녀를 바라보며 호흡 없는 숨을 쉬었다.

빛은 계속해서 코맥의 팔을 불태우며, 마법사와 그를 모두 삼켰다. 지독한 고통에 코맥은 곧 약해졌고, 자체력이 흔들리면서 손의 힘도 풀려졌다.

«그만.» 그는 거칠게 말했다.

타오르는 마력은 자비롭게 잦아들었고, 빛은 그가 불러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사라졌다. 주위 모든 것이 끔찍한 고요함에 빠져들었다. 마법사는 콜록대며 체액을 뱉어냈고, 고통에 섞인 웃음이 들렸다.

«이런, 세상에.» 그녀는 가까스로 말했다. «너도 우리와 똑같구나.»

코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서서히 느슨해지는 손이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걸 알려주었다.

«네가 무엇인지 알아.» 그녀는 말을 뱉었다. «흉물. 무자비하게 없애 버려야 할 대상.» 그녀의 두 눈이 코맥의 휘장에 고정되었다.

«다른 자들을 저지하기 전에,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며 즐겼겠지. 왜지, 성전사? 재미있었나? 우리 흉물들 중에 누가 진짜 괴물이이지?»

코맥은 눈을 감고 반사적으로 숨을 내쉬었다. 마법사는 그가 자기 말에 반박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코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법사는 풀려났지만,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듯 즉시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일어나 코맥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코맥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법사는 가까이 다가와 한때는 호기심이었던 것과 같은 감정으로 그를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서 자기 얼굴에 손을 가져갔다.

가시 돋친 손가락이 불을 파고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죽은 살점을 뜯

어내면서도 그녀는 코맥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추고 얼굴에서 떨어졌다. 그녀의 손가락 안에서 구더기가 꿈틀거렸다. 마법사가 그걸 코맥에게 던졌고, 구더기는 그의 얼굴에 맞고 떨어졌다.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전의 우리 모습을 조롱하는 듯한 존재가 되는 것. 매일매일 존재라는 목줄에 묶여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것. 이제 와 자유 의지를 되찾고 우리가 사라져야 한다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진정한 포세이돈이 되는 것 말이야.»

코맥의 손이 옆으로 늘어뜨린 전쟁망치의 손잡이를 더 짊 쥐었다.

«하지만 어둠의 여왕님께서 모든 걸 바꿔 주셨어.» 마법사는 계속 말했다. «이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 줬다고. 이 비참한 세계에서 우리가 더는 등 뒤를 힐긋거리지 않고, 또 우리에게 정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건지 묻지 않아도 되는 곳을 만들어 줬지.»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짓했다. «아제로스 전체에서 우리를 홀로 돌려보내려 하는 자들이 없는 곳이 하나 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네게 죽음이 너무 어려운 도전이라면, 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도와주겠어.» 그녀 뒤쪽으로 다른 생존자들이 연대감을 보여 주듯 모여들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너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 코맥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모두 불이 없는 모닥불로 돌아갔다. 숲이 지켜봤다. 생존자들은 재빨리 자기들끼리 논의한 후 다시 코맥을 홀로 남겨 두고 떠났다.

이게 내가 선택한 건가?

그의 시선이 휘장으로 돌아갔다. 한순간, 그의 기억 속 휘장은 다시 깨끗했다. 그는 차렷 자세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힘겹게 얻어낸 휘장의 새로운 무게를 느꼈다. 그의 승리를 치하하며 자긍심과 불굴의 의지를 키워냈던 사령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코맥은 붉은십자군의 대의를 믿었던 시절을 기억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함께했던 확신을 기억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을 바라보았다. 그 휘장도 죽어 너털너털해진 채 그의 몸에 걸려 있었다. 자신과 똑같은 유물이 되어 있었다.





코맥은 손을 들어 붉은십자군의 문양을 붙잡고 가슴에서 뜯어냈다. 그 천은 불규칙하게 우글거리며 방어구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땅에 버렸다.

곧 전쟁망치도 그 뒤를 따랐다. 무거운 망치가 지면을 때리는 소리가 먹먹하게 울려 퍼졌다. 코맥은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앞쪽에서 오직 자신에게만 보이는 무언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망치가 잠든 곳에서, 이후 누군가의 손이 내려와 그 망치를 회수했다. 여기저기 훼손된 손이었지만, 회수한 유물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건 잊지 않았다.

한 손가락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손잡이를 따라 문질렀다. 애정을 담아 사용하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관리한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손잡이를 계속 살펴보다가, 오랜 세월에 곧 사라질 듯 희미해진 각인에 멈췄다. 성스러운 빛과 맹약을 맺은 모든 성기사에게 중요한 말이 익숙한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노다라도르.

우리는 섬긴다.

전쟁망치를 따라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그 여자는 무기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일까 생각했다. 그 무기는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

코맥은 자기 무덤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흙이 뒤집힌 것을 보면 안쪽으로부터 찢어 연 듯했다. 그가 산 자들의 세계로 돌아오는 과정은 그가 그 세계를 떠났던 순간만큼이나 격렬했다. 활짝 열린 무덤이 그를 유혹했고, 그는 무릎을 꿇으며 손가락으로 무덤 가장자리의 뒤집힌 흙을 살펴봤다. 망각의 부름은 어둡고 따스했다.

«이상하네. 묘비엔 <겁쟁이 코맥>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데.»

코맥은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걸 알지 못했다. 상관없었다. «누군가 찾아와서 내 위에 흙을 다시 덮어 주길 바랐는데.» 그는 목소리를 향해 돌아서지도 않고 말했다.

«그렇게 가까운 짓을 왜 하겠어.» 상대가 말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훈련해 왔어. 그게 어려워졌다고 해서 곧장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니야.»

코맥은 재빨리 돌아섰다. 분노와 비난이 앞섰다. 방어할 준비가 됐다. 지금껏 내내 바로 그 질문과 씨름을 해온 것만 같았다.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는데?» 그는 따져 물었다.

눈앞의 광경에 그의 분노가 차갑게 식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달빛 속으로 들어섰다. 자세는 온전했지만 형체는 그렇지 못했다. 빛바랜 장미색 머리는 턱에 닿는 길이로 짧게 잘랐다. 호감이 아니라 전투를 기대하는 사람과 같은 그 머리 길이는 실용적이고, 신중하고, 목적이 명확했다. 그녀의 방어구도 같은 말을 했다. 보라색 색조로 버려낸 그 판금 갑옷에는 이제 창백한 빛만 남아 있었다. 코맥은 그게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한 탓에 광채가 사라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 다 방어구의 목적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건 바로 두 눈이었다. 생명 없는 지각이 담긴 눈. 그와 마찬가지로 죽은 눈.

그녀는 죽음으로 형성되고, 생존으로 연마되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지금껏 걸어왔다. «당신보다는 많이 알고 있지.»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난 다니타라고 해. 난 내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고 흠을 채우기로 했어.»

코맥이 옆으로 늘어뜨린 손을 팍 쥐었다. 둘 사이에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한참이 지난 후,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을 했군.» 코맥이 말했다.

«더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지.» 그녀는 돌아서는 코맥을 향해 말했다.

«진짜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같은 괴물에게는 필요한 것만 있을 뿐.»

«필요한 것? 누구에게?» 그녀가 물었다.

코맥의 손뺄가 가슴보호갑의 금속을 때리며 돌아온 분노를 보여줬다. «내게.» 그가 잘라 말했다. «빛이 거부하는 존재라고? 내가 지켜 주겠다고 맹세한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는 무덤을 내려다봤다. «그래.»

다시 말이 멈췄다. «아니야.» 그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코맥은 지

친 듯 한숨을 내쉬는 시늉을 했다. 그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 같았다. «날 없애 줘.»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대답해 줘.» 그녀는 가까이 다가왔다. «빛은 당신을 거부해.» 그녀는 태평하게 말했다. «당신이 빛을 불러낼 때마다 당신을 갇아먹는다고. 하지만 그런 끔찍한 비용을 치르면서도 당신은 빛을 불러내고 있어. 흥미롭군.» 그녀는 말을 마쳤다.

코맥은 죽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눈이 없어도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 코맥은 대답하듯 웃었다. 즐거운 기색이 없는 짧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평생에 걸친 훈련과 반사 신경을 사명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겠지.»

«당신은 이걸 고귀한 행위로 착각하고 있고.» 그 말은 그의 정신적 갑옷 사이의 무른 틈을 때렸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눈 뒤에 서 분노가 이글이글 끓어올랐다.

«아, 알겠어.» 그녀는 말을 이었다. «자유 의지가 있는 우리들이 망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 두 가지뿐이야. 첫 번째는 세계가 우리를 거부할 때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유지하는 것.»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내면의 분노와 싸우는 코맥의 두 눈에서 비정상적인 빛이 깜빡였다.

«이제 두 번째로, 당신은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그녀는 가까이 다가왔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당신 뒤에 남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여.»

코맥은 그녀를 차분히 살폈다. «왜 날 따라온 거지?» 희미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녀는 거짓말을 들킨 사람처럼 두 손을 올렸다. «알아야만 했어.» 그녀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러니까 대답해 줘. 대체 왜 빛의 고통을 감내하는 거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그의 정신 속에 기억으로 남겨진 범위를 조금 벗어나 꿈과 같은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희미한 자긍심을 끄집어 냈다. 생전의 그에게 중요했던 순간들이 언데드가 된 지금은 사라졌다.

«우리 스승님께서는 성기사가 하나의 이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셨

어. 성기사는 직접 싸우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싸워줘야 했지.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걸 강조했어.»

코맥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말은 왠지 익숙했다. 마치 예전에 들었었지만 언데드가 되며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 잔혹한 가빈라드.»

코맥의 세계가 잠시 멈추고 둘 사이의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다니타는 천천히 등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 것을,» 그녀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버리면 안 되지.»

전쟁망치가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코맥은 처음 보는 무기라는 듯 그걸 물끄러미 바라봤다. 낡은 끈. 금이 간 망치 머리.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 손잡이에 남겨 놓은 메시지. 그는 되찾은 분실물처럼 느껴지는 그 무기를 들어 올리려고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무기에 손을 댔다.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다. 따스한 온기. 덥수룩한 수업 속 웃음. 침착한 목소리와 떨리는 그의 어깨 위에 놓인 손.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이 쉬운 것은 없다, 아들이.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선택지를 두고 발버둥 칠 때, 빛이 언제나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온 마음을 담아서 빛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기억이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코맥은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깨어난 이후 가장 열정적인 기도를 했다. 길을 물었다. 언데드의 삶을 벗어나거나, 그걸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빛은 오래지 않아 응답했다.

신성 마력이 코맥의 모든 것을 불태웠다. 찾고, 불태우고, 소모했다. 그의 존재를 구성하는 섬유 하나하나가 비명을 질렀고, 빛과 함께 자신이 받은 대답이 소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사체에 흘러들었다. 그의 몸에서 모든 근육이 수축하고 찢기며 그의 모습은 더욱더 망가졌다. 압도적인 고통의 무게에 그의 정신 또한 조각나기 일보 전이었다. 그의 정신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거부했다. 코맥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끌어모아 서서히 팔을 벌렸다.

«아버지.» 그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빛의 불길이 그의 애원을 뒤틀고 불태웠고, 신성 마력은 전보다 더 밝게 타올랐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고, 성기사들 사이의 공간으로 어둠이 돌아왔다. 코맥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기도의 고통은 그의 저주받은 육신에 남았지만, 이제는 내면으로 옮겨갔다. 변했다. 아픔은 남았지만, 그 아래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온기. 희망. 빛 그 자체의 축복.

그 깨달음에 코맥은 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손이 빛났다. 손가락 주위로 빛이 춤추며, 그의 육신을 삼키지 않고 거기 내려앉았다. 치유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고, 또 얼굴 앞으로 손을 들어 그 아래의 죽은 육신을 더듬었다. 그리고 돌아온 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느꼈다. 냉기. 거친 질감. 현실. 코맥은 다니타를 올려다봤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어, 형제여.»

그녀는 코맥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에사루스 노다라도르, 가빈라드의 아들이여.» 그 말이 앞의 어떤 말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울렸다. «피와 명예로,» 그녀가 말했다. «그대는 아직 섬길 수 있다.»

그 고대어 문장이 그의 마음에 남았다. 그것은 맹세였다. 약속이었다. 생전에 했던 맹세가 죽음 이후에 돌아왔다. 코맥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고, 그녀는 굳건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되찾은 망치를 굳게 잡았다. 그녀의 미소를 봤을 때, 그의 안에 있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차분해졌다. 회복되지 않고,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온전해졌다. 코맥은 무덤에서 물러났다.

«자매여,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다오.»

